

자자석 박사의 불교공부 7기



삼보이야기(2)-불법

부처님께서 열반에 든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의 일이다. 마가다국의 대신인 고파카 목갈라나가 부처님의 십대제자 중의 한명이자 평생 부처님을 모셨던 아난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 아난이시여, 세존께서 ‘이 사람은 내가 열반에 든 후에 너희들이 의지할 곳이다’라고 입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존께 그런 입명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승가에 의해 합의를되거나 장로들에 의해 지명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대신 고파카여, 우리들에게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할 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법이 우리들이 의지할 곳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 한 이후에도 우리들이 법에 의지해야 함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불교도들이 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은 바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혹은 청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베풀었던 가르침이다. 따라서 부처님의 제자들은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 ‘법에 대해 굳은 신념을 품노라. 법은 세존에 의해 능히 설명되오다. 그 법은 현실적으로 효과

차님께서는 ‘여래가 이 세상에 나오든 혹은 이 세상에 나오지 않든 이것은 결정되어 있으며, 법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법적 성이란 의미의 법이 두 번째 용법이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그것을 중생들에게 설명하게 되는데 그때 깨달음의 내용을 달리 표현하자면 법적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때의 법적성은 다른 아난 연기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부니카야>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가르침이 있다.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부의 아들인 사티에게 내린 법문이다. “비구들이여, 만일 그대들의 견해가 명확하고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에만 집착하고 매달린다면 ‘내가 말한 법은 마치 강물을 건네주는 뗏목과 같아서 강을 건너면 뗏목을 놓아버려야 한다’는 비유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내용이다. 이것은 ‘뗏목의 가르침’으로 알려진 것이며, <금강경>에서는 무집착의 공사상을 강조하기 위해 이 가르침을 인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상의 가르침에서 법을 뗏목에 비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뗏목이란 강을 건너는 수단이다. 강을 건너고 동시에 뗏목을 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여기서 경전에 절대성을 부여한다면 부처님의

불교윤리의 근본·신행 기본적 토대 존재·법칙성·가르침 의미 포함

있는 것이며, 때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며,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지혜로운 사람에 의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삼보의 하나가 법이란 점에서 법은 불교도들의 신생활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며, 가치의 판단과 불교적 윤리를 형성하는 근본이다. 그렇지만 법이란 용어는 우리들이 생각하듯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다. 왜냐하면 법이란 용어는 매우 다의적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불교를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법이란 용어가 지니고 있는 다의성 때문이다.

불교에서 법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는 보통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삼법인에서 제법무어(諸法無我)할 때의 법인데 이 경우는 ‘존재 일반’을 지칭한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의 존재들,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혹은 구체적이든 관념적이든 관계없이 궁극적인 본질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일체의 존재란 결국 우리들의 의식을 포함해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것 전체를 포괄한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들을 관찰해 보면 그곳에는 하나의 법칙성이 내재되어 있다. 때문에 부

가르침을 금과옥조처럼 교조화할 이유도 필요성도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세 가지로 설명한 법이란 말은 존재 일반, 법칙성,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일체의 존재는 법칙성에 의해 나타나게 되며, 그러한 사실 즉 법칙성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게 보면 그런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대단한 의미와 권위를 지닐 수 없다. 그날 뗏목의 역할도 끝나 버리는 것이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법 역시 공한 것이라 말한다. <잡아함경>에서 “부처님, 어떤 것을 세간이 공한 것이라 합니까?” “눈이 공한 것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공한 것이며, 내 것이라는 것도 공한 것이다. 이것은 존재의 본질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보고 느끼는 것 역시 그러하니라.” 일체를 있는 그대로 인식할 뿐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마지막까지 잊어서는 안된다. 법칙성을 깨닫게 된다면 강을 건너 뒤엔 뗏목을 버리듯이 경전의 문구에 집착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불교의 생활·대중화는 온겨레 성불인연 짓는 일

오은산중심수객(五蘊山中尋牛客) 독좌허당일륜고(獨坐虛堂一輪孤) 방원장단수시도(方圓長短誰是道) 일단화염소대천(一團火爍大天)

오은산인 몸 생각 듯 가운데서 심우 불성을 찾는 나그네가 텅 빈 집에 둥근 달이 흰하 비치는데 홀로 앉았다. 모나고 둥글고 길고 짧은이것이 누구의 도이라 일단 ‘이렇고’의 불꽃이 대천 번뇌를 태우는 도다

다는 것입니다. 묘행으로 용을 삼는다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작용하는 공용을 수승미묘한 수행법인 묘행을 통해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묘는 요도라고도 합니다. 요도는 생사를 건너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대도를 말하는 것입



지상 백고좌

도문 스님

(장수 죽림정사 조실)

용성스님의 견도송(見道頌)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하고 뜻으로 분별합니다. 우리는 오감으로 분별하는 알음알이를 지적 미혹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적미혹에서 벗어난 경지를 ‘견도’했다고 합니다. 견도(見道)란 무엇입니까.

견도란 알음알이의 미혹에 얽매이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견도 위에서 수도를 해야 합니다. 수도란 쉽게 말해 정에 얽혀 있는 것을 풀거나 확실히 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관념으로 굳어진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도 견도입니다. ‘금강경이 최고다’ ‘화엄경이 최고다’ ‘아함경이 최고다’ 하는 관념을 무너뜨리는 것도 수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도를 바탕으로 만중생을 교화해야 합니다. 교화란 악을 짓는 자 못 짓게 하고, 선행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나쁜 길로 가는 자를 정도로 가게하고, 나쁜 생사를 짓는 자를 열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금강경의 대의와 대의를 알아야 합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대의는 무상(無相)으로 종(宗)을 삼고, 무주(無住)로 체(體)를 삼고, 묘행(妙行)으로 용(用)을 삼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종을 삼는다는 것은, 모든 현상은 언제든 변화하고 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존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종이란 자기주장의 요지이자 주(住)입니다. 좋은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고, 주는 행위주체인 불성을 말하며, 이것이 바로 참된 나입니다.

무주로 체를 삼는 것은 만물의 근본인 무주자성을 가지거나 집착하지 않고 연을 따라 일어나기에, 만물이 불변하는 본보양인 체를 근본으로 삼는

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의 대의를 ‘무상으로 종을 삼고, 무주로 체를 삼고, 묘행으로 용을 삼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집과 법집을 파하고 아공(我空), 법공(法空), 구공(俱空)의 삼공(三空)을 수도의 요체



◇도문스님은 언제 누구를 만나든 “좋은 마음을 내면 무슨일이든 언젠가는 이룰수 있다”고 강조한다.

좋은마음 내면 언젠가는 성취 ‘회향’ 없는 삶 세상시끄럽게 해

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아집은 자신의 견해에 집착해 떠나지 못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여섯 가지 근본 번뇌는 이 아집의 힘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본성이 아닌 아집과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실제라고 믿는 법집을 타파해야 합니다. 나에 집착하지 않으면 번뇌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타파해도 법집을 타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집이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법에 집착한 나머지 각오(覺悟)를 얻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다운 진리란 바로 대오(大悟)하는 것입니다.

또한 삼공을 표현한다는 것은 반야를 깨친 보살의 지혜를 아상으로 삼고, 증득할 바 진어로서 인

심을 삼으며, 온전히 깨친 것으로 중생상을 삼아 깨친 것을 잊지 않고 계속 행해야 함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부처님의 법이 곧 생활임을 인식하고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지성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생활이 곧 부처님 법이며, 부처님 법이 곧 생활입니다. 용성스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불교를 생활화해서 모든 국민이 따르도록 불러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불교를 대중화하는 것은 온 겨레와 인류에게 성불인연을 짓는 일입니다. 나 혼자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참선이나 열반이나 간경이나 주벽이나 어느 것이든 다 잘해야 불교가 지성화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는 5대 수행이 있습니다. 5대 수행은 불사, 주벽, 간경, 열반, 참선수행을 말합니다. 이들

지장보살인력 입은 달마도 보급에 나선 보현스님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원력 함께 나누는 삶 서원



세백 맑은 공기가 창을 넘어오는 시간이다. 달마도에 의해 명상에 빠진 보현스님은 날이면 날마다 붓을 들고 그리고 또 그린다. 옛날 아승을 바람을 질어지고 목탁을 두들기며 서을 사내 지하혈역마다 내렸다. 다시 타고 다음역으로 향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달마도를 1년에 전 지하혈을 4바퀴를 돌며 불교를 전하고 그들의 지든 마음을 열어주는 포교를 해왔다.

출가 후 증근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발원에 발원을 거듭하며 증진하던 증 지장보살님의 화현하심을 영험하고 달마도를 펼쳐 보여 주시며 “이 달마도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 보급하면 이 달마도가 있는 곳마다 영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저의 달마도를 소장하게 되었지요.” 서원시내에만 무로 일만 여명의 달마도를 보급해 그들이 달마도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난 경제위기 때에는 안양시의 000파르트를 지어 놓고 분양을 못해 부도직전에 이른 수원의 어느 건설회사는 분양 사무실에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걸어 놓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전세대가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를 마쳤다고 한다. 지금은 구로구에 법당을 마련하고 계속 불사중이며 홍익대에 서 체계적인 그림공부를 하면서 날마다 달마도를 그리며 지장보살님께 “이 땅의 병들과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력으로 치유되고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달마선사의 원력으로 어렵고 괴로운 고(苦)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날마다, 날마다 서원하고 있다.

문의 전화 021857-4576, 0171430-5008
보 현 사 보현스님 합장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 발원된 중생에게 영기가 왜 왔으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며, 또 재자를 통하여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중생들의 가정에 일이 풀리지 않고 계속 악연만 되풀이 되는 것이 영기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알 수 있고, 또한 영기의 원하는 바를 물어주고 그 소원을 들어 천도해주면 영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귀유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기원불림이나 영기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기를 깨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3년후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현관의 영화를 보듯이)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기가 세우고 세우는 길어미는 모습
- 노릇들을 챙기는 모습
- 지옥의 문이 열리고 영기가 떠나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영기의 작용에 의해 고행받은 특별 상담

무병 ·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놀리고 환청으로 잠 못 이루는 분.
병마다 기원불림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생하는 분
지상의 그 어떤 악연도 즉시 단 한번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철학인, 무속인, 기공사, 의사, 시업가, 일반인
■ 일시 : 인원 수시 접수

021556-5590, 5542

오산 팔자 심리학 연구소 소개

(팔자학은 심리학이며, 인격수양학이며, 운명예측 및 개신학입니다 / 사주팔자란 마음의 구조물입니다)

<최신 팔자 명리학 비결> 강의

지자(오산 정대균) 직강(이초원리에서 고급추명 비결까지)

운세 상담
심리구조, 적성 및 각종 인연 (이성, 재물, 지위, 지식, 시업, 승진, 사업, 승급 등) 분석상담

용신 상담
사주학을 공부했으나 자신의 용신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을 위한 상담

<최신 팔자 명리학 비결> 서적 판매

- 본서의 주요 장점 : 간단한 수학공식으로 어떠한 사주 이던 쉽게 용신을 취할 수 있는 비결 공개(강약, 음양, 구조 및 희음신) : 오행심천간·심이지지의 청초원리에서 고급추명비결(심리분석, 궁위론, 범성변공론, 밀간진입론 등)까지 총인강 : 대, 세운 해석비결 공개 : 본서로 공부하면, 누구나 다 명리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점.

<최신 팔자 명리학 비결> 서적 설명회 개최

- 월요일 ~ 토요일 : 오후 2시 30분 ~ 4시 까지
- 일요일 : 오전 10시 30분 ~ 12시 까지

www.sazoopalza.com
한글도메인 주소 : 사주팔자닷컴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 3동 779-15호
전화 : (02) 831-0055(대), HP: 011-208-0051

중풍(뇌졸중)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약제제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을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중 · 심장마비 · 협심증 · 심근경색

Anti-Hyper 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중(중풍), 동맥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환 예방
- 약탈(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개방약사 약력

- ▶ 1941년 2월 5일 경북 상주 출생
- ▶ 1965년 호성카톨릭대학교 약학과 졸업
- ▶ 1997년 홍재학 연구소 설립
- ▶ 현재 대체의학, 본지 교정의학, 재충명영역 연구원 대한한약국(한약 영농 연구실) 경영중
- ▶ 저서 : 21세기 만능 난치성 피부병

2달분 258,000원

구입신청 033-255-5669 오리엔탈제약(주)



◁최근 불교TV법당 무상사에서 열린 큰스님 초청 특별법회에서 법문하는 도문스님.

수행을 통해 온 국민은 악을 그치고 선을 닦는 지악수선(止惡修善)의 생활과 생사의 괴로움을 여의고 열반의 즐거움을 얻는 이고득락(離苦得樂)의 수행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종교인들이 이고득락의 신앙생활을 회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리석음을 굴러 깨달음을 얻는 전미개오(轉迷開悟)의 수행생활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도하고 교화해야만 일체중생 모두가 성불할 수 있습니다.

보시에 훈련이 돼있고, 좋은 마음을 내는 사람을 '능훈인(能薰人)'이라고 합니다. 능히 훈련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평소에도 좋은 일을 하지 않다가 기회를 만나 마음을 내는 사람을 '이숙인(異熟人)'이라고 합니다. 해탈로 가는 길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이숙인이 되고 능훈인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구례 화엄사가 임진왜란으로 전소되자 스님들이 자기네 살 궁리에 절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실스님은 "누가 보더라도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 한다"며 주지스님에게 "산을 내려가서 거기나 부자에 상관없이 무조건 처음 만나는 사람

기자가 본 도문 스님

불교생활화 교화지침

도문스님에게는 '용성스님'과 '전법'이라는 단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독립지사 33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용성스님은 10가지 유훈을 남겼고, 도문스님은 그 가르침을 받들어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도문스님이 가는 곳마다 강조하는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지성화도 용성스님의 교화지침이다.

도문스님은 그런 용성스님의 유훈을 널리 알리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전법에 여념이 없다. 공무 원불자회와 논산훈련소 수계법사는 물론, 전국 각지를 다니며 포교에 몰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경과 조사어록을 100만권 이상 배포했고,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계를 주었다.

95년부터는 네팔에 대성석가사를 세워 해외 포교에 나섰고, 최근에는 인도 보드카야에 한국 사찰



◁도문스님은 계를 지키지 않는 상좌들에게는 엄하기로 유명하다.

을 짓겠다는 계획으로 인도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상좌인 원회스님(정통사지 주지)은 "은사스님은 후학들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이 극진하며 인정이 많아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계율과 예절을 지키지 않는 상좌들에게는 늘 불호령을 내릴 만큼 엄격하다.

14년째 스님을 모셔오고 있다는 '백용성 조사

에게 절을 지어달라고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지스님은 조실스님의 뜻을 받들어 권선문을 지어 마을로 내려가던 중 한 거지를 만났습니다. 스님은 조실스님의 당부가 생각나 납죽 앞드려 절을 하며 "거지님, 절을 지어주시시오"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거지는 "밥을 빌어먹는 제가 돈이 어디 있어 절을 짓습니까"하며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당시 화엄사 말에는 큰 저수지가 하나 있었는데, 앞으로 가지니 주지스님이 막고 있고, 뒤로 가지니 저수지라서 갈 길이 없자, 거지는 굶어죽으나 빠져 죽으나 매한가지니 "기왕 죽을 바야 좋은 일 하나 하자"는 생각에 "부처님 제가 죽으면 임금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절을 지어주겠다"고 생각하며 저수지를 뚫어 냈습니다. 주지스님은 '이 모두가 부처님의 뜻이니 절을 반드시 짓겠다'고 생각하고는 인연을 기다리며 20년간 옛 장사를 하며 전국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임금이 된 숙종은 밤마다 한 스님이 자신에게 "거지님 절을 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해오던 임금은 어느 날 장터 행차 길에 옛을 파는 스님을 보게 되고, 그 스님이 꿈에서 본 스님임을 알아차리고는 자초지종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의 화엄사 각황전을 지어주었습니다.

기왕 죽을 바야 좋은 일 해야겠다는 그 생각이 바로 '이숙인'이고, 틀에 빠져 죽은 그 거지가 바로 '이숙인'입니다. 좋은 마음을 내면 언젠가는 이를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은 내지 않으면서 씨앗을 따먹으려 해서 안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이숙심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부처님께 예불공경을 올려야 합니다. 부처님이 몸을 다 바으로써서, 부처님 이 합장은 오분법신행이 되나니, 제보살의 범공양은 수행이고 모든 공양을 부처님께 공양하나이다. 부처님 나의 죄업을 회회 하오니, 부처님 내 마음을 알아주소서. 내 이제부터 악업지움을 버리고 싶어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미래세에 성불 서원하소. 그러면 능훈신(能薰識)을 뿌리로 이숙식(異熟識)이 발동해 이숙인이 되어야만 능훈과 이숙을 꽃피워 보리열매 맺으리. 과거세부터 닦은 나의 공덕 일체중생 위해 보리회향, 열반회향 하리다.

정리=한명우 기자 mhwan@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전국돌며 포교 몰두

불자 100만명에 수계

유훈선원후회회 한명우 회장은 "도문스님께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는 분이고, 그 일념 하나로 지금까지 사셨다"며 "스님을 빌 때마다 게으른 내 자신을 채찍질하게 된다"고 말했다.

도문스님은 1935년 전북 남원 출생으로, 46년 장성 백양사에서 동련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만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60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경주 불향사, 공주 마곡사, 장성 백양사, 정음 내장사, 서울 대각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재단법인 대각사 이사장을 맡으면서 장성 죽림정사 조실 겸 주지, 경주 천룡사지 및 네팔 대성석가사 조실로 주석하고 있다.



덕혜스님의 스님이아기

원철스님

불교에서는 세상의 변화와 중생들의 만나고 헤어짐을 설명하는 단어 대신 인연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있다. 씨줄과 날줄처럼 촘촘히 엮힌 시간과 공간의 흐름속에서 마음이 만날 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인연의 블랙홀에 빠져든다.

92년, 한달여의 인도 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 태화산 마곡사 선원 동안거에 방부를 들인 나에 게도 이러한 인연의 시간표가 기다리고 있음을 어찌 알았을까? 20여 선승들이 저마다의 화두를 들고 참나를 찾기 위해 산사의 적막 속으로 빠져들던 그때 원철과 나는 도반이라는 하나의 인연의 실에 묶였던 것이다.

원철의 인생역전은 그의 첫 연극 '뱃바를 훔친 도둑'처럼 극적이다. 올 2월6일부터 3월 22일까지 대하로 '알과핵극장'에서 공연된 스님의 첫 작품은, 도둑이 스님으로 변장하고 절에 들어와 물건을 훔치려다 부처님의 법에 감화되어 참 스님이 된다는 내용이다.



그림·문병성

남다른 문학적 재능...여러 상 수상

천안에 불교문화원 세워 전법에 앞장

주었다. 그런데 1년여만에 원철은 건물이 다 완성되었으니 부처님을 모시는 집안법회를 하겠다면서 집안식을 해달라는 전화를 했다.

반갑고도 고마운 마음이 앞섰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양사 천안 불교문화원'이라는 현판이 붙은 건물에는 연극 등의 공연을 할 수 있는 90평 규모의 지하공연장이 들어있다. 2층은 방사, 3층에는 100평 규모의 법당이 마무리 공사중이었다. 오랜만에 함께 차를 마시며 원철스님은 불사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전화를 하면 돈 달랄까봐 전화를 피하는 신도도 있었고, 불사금을 내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공사업자들에게 빚 독촉을 당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지금도 12억원의 공사대금중 5억여원을 갖지 못하여 공사장금을 줄일 일이 걱정이라면서도 이렇게 말하

었다. "덕혜스님, 불사를 한번 해보시오. 그림 철이 듭니다. 나는 이번 불사를 경험 삼아 한번 더 이러한 대작 불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어느새 원철스님은 젊었을 때의 불량한 '끼'는 속 빠져버리고 3층 법당보다도 더 높은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서울 정법사 주지

승복 법복 인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먹물, 마직	적삼 · 바지 : 150,000 동방 · 바지 : 180,000 두루 막 : 150,000
2. 무명 수재 · 한국산 먹물 염색	적삼 · 바지 : 180,000 동방 · 바지 : 220,000 두루 막 : 180,000
3. 모시론 (풀 안해도 됨)	적삼 · 바지 : 150,000 동방 · 바지 : 180,000 두루 막 : 150,000
4. 면 래우사 특징 · 세탁시 풀 안해도 됨	적삼 · 바지 : 130,000 동방 · 바지 : 160,000 두루 막 : 130,000
5. 장삼 특징 · 가법고 통풍이 잘됨	모직 : 180,000 ~ 250,000 염머털 : 200,000
6. 신도복 (단체주문받습니다)	조끼 · 바지(모직회색) : 60,000
7. 셔츠(차이나 라운드) · 걸방 · 손가방	

◆유사제품과 비교해 모십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이길 중앙로역 3번출구역(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관절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한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신부, 흡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응(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치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5월은 실록의 계절입니다. 우리결혼합니까?

10년 노아우의 공동탐미 밀거름이 되었습니다. 불자 인연을 찾아 현대로 지금... 당신을 기다리는 인연의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요!

남이다 좋은 나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위치안내 ◁
1호선 소사역 하차 (북부출구) 150m지점 전파성담 후 병문약속

■ 대우,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시는 불자들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 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 032)345-5411
휴대폰 : 011)288-2944

확실한 영가천도

영가천도가 확실하되었다면 현재의 본인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입니다. 천하고 우습게보이고 값어치없어 보이고 얼굴이 검붉고 눈동자가 탁하고 얼굴에 핏기가 없고 주석주석해보이고 피부속에서 검은색이 배어나온듯 검고 하십니다.

한국의 피부색은 검붉거나 하얀색 속에서 검은색이 비치듯한 피부색이나 핏기가 없거나 주석주석한 얼굴이 아닙니다. 본래의 모습은 흰색이들며 하얗거나 약간의 황색입니다.

눈이 무엇에 가려져 있듯이 검거나 흰눈자위가 탁하거나 심하게 붉은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모습은 맑고 깨끗하거나 약간의 흰색이보입니다. 천해보인다거나 우습게보인다거나 어둡거나 하지 않습니다. 본래의 모습은 지금보다 당당해보이고 근엄해보이고 자신있어보이며 밝고천한 모습입니다.

49재

49재를 봉행후에는 병들어 가지거나 고통스럽게 가신분이계실니까 살아계실때 병들에 고통받던 모습이 49재중에 모두 벗어버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앞에 보일것이며 매주 재사를 지낼때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공덕을 받는것을 직접 느끼십니다.

위의 내용은 정토사에서 그동안 49재와 천도제를 봉행한 일부가 아닌 모든 분들의 결과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 1리
대한불교 조계종 정토사
TEL 031)775-3350